

순정이

주의 승천 대축일(홍보주일)

제 1독서: 사도 1, 1-11

제 2독서: 에페 1, 17-23

복음: 마태 28, 16-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마태 28, 20)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을 위한 대중매체



오성기 신부 / 사목국부국장

오늘은 ‘제30차 세계 홍보주일’입니다. 예수 승천 대축일을 홍보의 날로 정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의무가 복음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세계 홍보주일의 주제는 ‘대중매체: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을 위한 현대의 광장’입니다. 이런 주제를 정한 까닭은 대중매체(mass media)가 여성을 위한 정의와 평등의 촉진뿐만 아니라, 여성의 타고난 역량인 여성특유의 재능에 대한 올바른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매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막강합니다.

신문,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음반산업, 전산망 등 대중매체는 전세계의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현대의 광장이며, 거기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태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정보와 쟁점 사항을 철저하게 대중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진 현대 사회의 현상입니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여성의 권리뿐만 아니라 여성의 특별한 재능을 사회가 충분히 인식하고 평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데 막강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흔히 대중매체에서 여성의 신장보다는 여성의 착취를 보게 됩니다. 여성은 불가침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쾌락이나 권력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흔히 남성적인 여성으로 희화화되고, 통찰력과 온정, 이해심과 같은 여성 특유의 재능들이 부정되곤 합니다. 또한 여성의 특유한 재능들이 ‘생명과 사랑의 문화’에 대단히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망각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현대사회에서 생명의 모태인 모성(motherhood)이 존중되고 포상되기 보다는 자주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하시고, 대중매체와 그 종사자들에게 여성의 역할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남녀차별과 불평등이 심한 동양권 사회,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부여하신 재능을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와 그 종사자들은 그들의 업무 영역에서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부인, 딸인 여성들이 성모 마리아의 위대한 사명인 생명의 탄생과 사랑의 실천을 온전하게 계승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명의 이기가 가져온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이를 선용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홍보주일을 지내며 다시금 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들, 특히 어린이와 젊은이들에 미치는 대중매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판단력을 기르는 기회로 삼으며, 특별히 여성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전해줌으로써 진정으로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홍보주일 담화문 참조)



잊어서 안될 5월의 역사

박 대 길(벨라도)

계절의 여왕 5월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참으로 다채롭다. 1일은 '근로자의 날'이자 '법의 날'이고 5일은 '어린이 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20일은 '성년의 날', 24일은 음력으로 '석가탄신일', 28일은 '권농의 날'이다. 더불어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 '청소년의 달'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달력에 나와 있지 않은 5월의 역사에는 이 민족의 비극이 함께 하고 있다. 이 땅에 군사 독재문화의 시발이 된 5·16 군사쿠데타가 있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의롭지만 외로웠던 80년 오월의 광주가 있다. 80년 오월의 광주를 잊고서, 5월을 그냥 맞이하고 보내는 것은 죄스럽다.

80년 오월의 광주

아 아, 살아남은 사람들은/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넋을 잃고 밤그릇조차 대하기/어렵구나 무섭구나/무서워서 어찌지도 못 하는구나

여보 당신을 기다리다가/문 밖에 나아가 당신을 기다리다가/나는 죽었어요.../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갔을까요/아니 당신의 전부를 빼앗아 갔을까요/셋방살이 신세였지만/얼마나 우리는 행복했어요/난 당신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아 아, 여보!/그런데 나는 당신의 아이를 뺨 몸으로/이렇게 죽은 거예요. 여보!/미안해요, 여보!/나에게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나는 또 당신의 전부를/당신의 젊음 당신의 사랑/당신의 아들 당신의/아 아, 여보! 내가 결국/당신을 죽인 것이가요.

광주여, 무등산이여/아 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꿈이여 십자가여/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더욱 젊어져 가는 청춘의 도시여/지금 우리들은 확실히/굳게 뭉쳐있다 확실히/굳게 손잡고 일어선다.

...(김준태-「아 아,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여」)

잊어서는 안될 80년 오월의 광주

그 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은 차마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비극이었고, 우리 모두는 단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다는 것으로, 나의 형제, 나의 혈육이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모른 채 하고 잊으려 했다. 그들은 고립되었고, 외롭게 분노하였지만 곧 자신들의 한을 추스려야만 했다.

그 동안 80년 오월의 광주는 무엇을 원했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학살의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정당한 평가이다. 그런데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문민정부'하에서 80년 오월은 어찌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80년의 오월의 광주를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바램에 대해 우리는 어찌하고 있는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80년의 오월의 광주여!

숲정이 산책



모범가정을 찾아서

주신대로 감사하게 살아요

박정순(베로니카) / 금암천주교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사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사랑으로 이룩된 가정 공동체가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드리면서 기쁘게 가정을 꾸려 가고 있는 박정순(베로니카, 48)씨를 만나 보았다.

그녀는 12년 전, 결혼생활 10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세상 물정을 모르던 그녀에게는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묻어지는 것 같은 암흑이었다. 남편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그녀에게 외할머니와 친정어머니 그리고 딸 넷과 뱃속에서 태동하는 아이를 안고 살아갈 날이 놓여 있었다. 고통을 겪고 있는 그녀에게 불교 신자인 친정어머니께서 성당에 나가보라는 권유를 하셨고, 그래서 찾은 성당에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새 삶은 시작되었다. 두려움없이 언제나 예수님과 성모님이 함께 해 주심을 느끼며 산다. 8식구가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보험회사, 파출부, 책 배달, 떡 가게 그리고 지금은 간병일까지. 가장 힘들었던 책 배달은 하루에 200-300부까지 했다. 배달할 때 비라도 오면 “주님, 제가 아파트를 돌리 때는 소낙비를 내려 주시고 단독주택을 돌 때는 가랑비를 내려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꼭 들어 주셨다고 말하면서 그때의 어려움으로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제는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도구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하고 기도하며 시작한다. 자녀들도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그녀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의 협력이라고 말한다. 친정 어머니(율리아, 70세)께서



집안 일을 돌봐 주시고 자녀들이 자기 일은 알아서 하고 또 서로가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녀는 요즘 주야로 일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더 벌어야 되기 때문이다. 24시간 간병을 하면서도 막내아들의 “엄마, 피곤하죠. 사랑해요”라는 전화 한 통이면 피곤함이 싹 가신다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행복해 보인다.

‘여성은 약하나 모성은 강하다’는 말을 생각하게 한다. 그녀가 힘겹게 뛰면서도 힘겨운 것을 모르는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인 것 같다. 아빠 없는 아이들이란 말 듣지 않도록 잘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서로가 도와주면서 커가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고맙기만 한단다. 큰딸 강혜순(대학교2), 혜경(고2), 혜란(중3), 혜영(중1), 민성(국민5)이는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은 적지만 밝은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 엄마가 아빠의 몫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인지 엄마를 어렵게 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한데 모여서 사랑의 고리를 단단히 엮어 나간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모두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녀를 만나고 돌아오는 나의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함을 느낀다. 그녀를 만나는 이들마다 사랑으로 전염되기를 희망해 본다.

취재 : 편집부

특집

TV 등 대중매체! 우리

며칠 전 본가에 갈 일이 있었다. 조카들과 함께 있었는데 다섯 살 먹은 조카가 효자손을 들고 나왔다. 그러더니 자신의 장난감 중 하나를 평평한 곳에 놓고서 그 효자손으로 쳐내는데 완벽한 골프를 치는 폼이었다. 그래서 “너, 그거 어디서 배웠니?” 하고 물었더니 텔레비전에서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면 그렇게 똑같이 흉내를 낼 수 있을까 하면서 놀랍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고급 스포츠라고 여겼던 골프도 이렇게 확산이 되는구나 싶었다. 바로 이렇게 텔레비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을 흉내내게 하기도 하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4.11 총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북한의 도발은 4.11 총선 이후 어디로 갔는가? 매스미디어는 이처럼 판단을 흐리게 하고 획일화시키며 구체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하루 2시간 40분, 1년에 1개월 11일, 70평생을 일생으로 치면 7년 9개월을 텔레비전을 보는데 보낸다고 한다. 무시 못할 시간이다. 텔레비전 앞에서 리모컨으로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시청자를 붙잡아두기 위해 텔레비전의 상업성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케이블 TV까지 가세한 시청률 경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것은 예사이고, 과격적이고 튀는 단어들로 가득찬 주말 연속극을 보면 편견과 불신이 가득하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다. 서서히 조금씩 오는 가랑비에 옷이 젖어가듯이 텔레비전의 많은 프로그램은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 자리잡아 은연중에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바로 자신도 모르게 텔레비전 중독중에 걸리고만 것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도전적이면서 현실적인 가사와 가창력 있는 노래와 현란한 춤, 심지어는 실연의 아픔과 이별을 노래하면서도 그들은 “펄스”이라고 외친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은퇴 후에 더욱 몸값(?)이 올랐다고 매스컴은 떠들고 있다. 우리는 텔레비전



의 광고에서 심심치 않게 그들을 만난다. 10대들의 절대적인 우상이 된 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은 무관심하다. “미녀와 야수”,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 제목만이 아니다. 바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D.J 덕의 노래이다. 이들은 과격적인 춤과 직선적인 가사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미녀와 야수”의 가사 내용이 외설적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만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이 노래와 그들의 춤을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다. 대학과 출세라는 중압감에 일찍부터 시달려온 청소년들에게 뽀뽀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또다른 해방구이다. 바로 이들은 대중문화의 현주소이다.

요즘 컴퓨터 때문에 자살한 고등학생의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학교에서 또다른 따돌림의 대상이 바로 컴퓨터가 없거나 모르는 아이들인 것이다. 컴퓨터는 이제 대화의 중심에까지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일찌감치 컴퓨터의 중요성과 PC통신을 통한 선교에의 방향을 잡은 수도회 덕택에 이 분야에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PC통신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서로 모르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이웃과의 친교의 삶을 돈독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수단들이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낼 때가 많다.

꿈동산 완구점

자전거, 미끄럼틀, 그네, 농구대
기타 완구일절 주문 및 예약판매
게임기 입하

황 의 성(요한)

박 옥 미(소피아)

주공3단지 앞 취외과 옆

☎ 227-1919(완구완구)

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드레스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폐백은 무료)

유 순 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 (수)82-2347 (야)225-5755

삼성기린컴퓨터대리점

컴퓨터, 휴대폰, 호출기
팩스, 유무선전화기

이장재·강화복(안젤라)

영동병원 사거리

☎ 78-2121~3

호출기 012-678-5424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서정우·이혜경(글리라)

북전주전화국←→법원 중간

☎ 253-3232, 254-2631

가정의 어디까지

김계선(에반젤리나)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한국 아동학회에서 ‘정보산업사회와 아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아동의 멀티미디어 사용실태’를 통해 “서울의 초등학교 4~6년생 3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학생이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린 폭력·잔혹 게임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62%가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는 판정을 받은 ‘똥2’, ‘모털 캠프’ 등의 게임을 해봤으며, 특히 남학생들은 7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정작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교사나 부모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데 있다.

요즘 I.I.E다. 유즈넷, 키드넷이라 하여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열풍처럼 불고 있는 인터넷 바람은 많은 염려를 낳게 한다. 정보의 바다라고 일컫는 인터넷에서 그야말로 표류하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정보나 해로운 정보들에 무차별하게 노출된 이들에게 인터넷은 아무런 구명선도 없는 망망대해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직도 일부에만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올 연말에는 컴퓨터의 보급수가 전화 보급율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하니 곧 우리 곁에서 일어날 일들이 다.

그러면 우리 생활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된 대중매체, 즉 매스컴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통신 수단과 대중 전달을 하는 매스 미디어는 오늘날 사람들을 경제 활동에 참여케

하고 표현의 자유를 경험케 하며 또 세계의 평화와 정의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교황청의 대중매체에 대한 문헌 <새로운 시대>는 말하고 있듯이 이 매체들은 분명히 희망적인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가족간의 대화를 단절시킨 주범인 텔레비전,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 등을 하고난 후 느낌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 그러다보면 이 프로그램의 좋은 점과 우리를 좋지 않은 편견으로 이끌어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눈이 열릴 것이다. 이 대화의 장은 자연스럽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논술의 실력을 키워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릴 적부터 컬러 영상에 길들여져 온 어린이, 청소년들과 기성세대와의 세대 차이는 이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물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부터 인식의 정도, 그리고 사고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영상세대를 일컬어 요즘엔 사이버 세대라고도 하는데 바로 가상현실의 공간을 현실처럼 넘나드는 이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즉각적이다. 이들에게 다분히 관념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교리를 어떻게 인식시켜야 할까? 교회의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이들 매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이 기술적인 발전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우리를 더욱 재촉한다.

요심이 (1186) 김병오



용머리 바자

성전 완공을 위한 마지막 바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용머리 성당을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 일시 : 5월23일~27일(5일간)
 • 장소 : 용머리 새 성당 앞마당

매일 성서 묵상 잡지 아낌의 우물(월간지)

「아낌의 우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들과 같은 기쁨으로 당신을 초대할 것입니다.
 • 가격 : 1,000원 • 1년구독 : 10,000원
 • 연락처 : 성바오로 서원(☎252-3398)

성바오로 수도회 성 소 모임

• 일시 : 5월25일(토) 오후6시
 • 장소 : 성바오로 서원
 • 문의 : 252-3398
 (02)986-1361~4
 이현철 신부

대우 디지털 피아노 전북대리점 벨로체 음악센터

• 디지털 피아노, 키보드, 전자울렌
 • 전문가가 운영하는 전자악기 전문점
 최 인 철(안토니오)
 유 혜 자(크리스티나)
 관동로 전북은행 앞
 ☎ 86-2643~4 FAX 86-5282

개업 씨에 프랑스(주)

유럽 및 세계 전문 여행사
 유럽 배낭여행
 (여행 상담을 환영합니다)
 조 중 자(베로니카)
 덕진광장 앞 서울의원 2층
 ☎ 72-3335 FAX 72-3065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 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
 상의 미혼여성
 • 일시 : 5월26일 오후 2시
 • 장소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삼광진 본원
 • 문의 : (0527)52-4241 (02)774-8025

한국 외방선 교회 성 소 모임

일시 : 5월 26일(일) 오후2시
 장소 : 가톨릭센터 612호
 (광주시 동구 금남로)
 장소문의 : (062)227-7126
 성소문의 : (02)3673-2525
 대상 : 교직원, 대학생, 일반(미혼 남, 녀)

사목단상

학교생활의 작은 기쁨



김영태 신부 / 성심여자중학교

별명이 뭐예요?
 머리는 언제부터 빠지셨어요?
 왜 신부가 되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사랑하던 여자 없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는 것으로 시작된 학교생활이 벌써 2개월을 지나 3개월로 접어들었다. 학교로 가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사실 어떤 기대도 있었고, 그래서 학교 밖에서 보고 들었던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많은 글과 이야기들을 마음 속에 되새기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남다른(?) 선생님이 되어 보리라는 의욕만 가지고 학교에 출근을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만난다는 흥분으로 몇 주간을 보냈고, 다음 몇 주간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심어 주겠다는 의욕으로 보냈고, 그러다가 그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조금씩 느끼며 몇 주간을 보냈고, 지금은 단순히 의욕만 가지고 달려들다가 이런 저런 실수만을 연발하여 선배 선생님들로부터 눈치를 받으며 보내고 있다.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점차 아는 얼굴로 여겨 인사를 하더니, 이제는 무섭게 생긴 내 얼굴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고, 그래서 복도를 지나가는 내 뒤에 몰래 다가와 내 등을 툭 치고는 '내가 안 그랬어요! 저애가 그랬어요! 왜 신부님은 저만 미워하세요?' 라고 시비를 거는 녀석이 생기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녀석들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 아예 다른 책을 펴놓고 내 눈치를 보며 '다음 시간에 시험이 있으니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생떼를 쓰기도 하고, 또 미처 다 펼기하지 못한 노트를 학과목 선생님께 들켜 다음 시간까지 검사를 맡으라는 벌을 받고는 '귀는 열어 놓고 열심히 들을테니 조금 눈감아 달라'는 녀석도 있고...

무언가 아이들에게 굉장한(?) 것을 심어 주는 멋진 선생님을 꿈꾸었던 나는, 이렇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멋있기는커녕 우습고 못생긴 대머리 신부로 아이들에게 인식되고 있으니... 사실 내가 생각해두 아무런 경험도 없는 신출내기 실력도 없이 의욕만을 가지고 달려들었으니 당연히 우스운 꼴만을 아이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겠다는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해 본다.

그래도 비위가 없어 겨우 인사만을 드리는 것으로 선배 대접을 끝내 버리는 나를 위해 '배드민턴을 배워라!' '지리산에 함께 가자!' '바둑 가르쳐 줄테니 아홉점 깎아라!' 라고 말을 건네시는, 그리고 도시락 함께 먹으면서 '신부님 반찬은 부자집 빈찬이네요?' '커피 한 잔 타 드려요?' 라고 챙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무엇보다도 지각해서 복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녀석들 앞에 같이 쭈그리고 앉아 장난을 거는 재미, 청소 시간마다 청소는 하지 않고 공중전화에 매달려 있는 녀석에게 '어떤 놈이야?' 라고 묻는 재미, 가사 시간에 준 비물을 빠뜨려 복도로 쫓겨난 녀석들에게 '요리를 못하니 소박맛지!' 라고 놀리는 재미, 특활 시간에 아이들과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재미, 제간에는 배웠다고 'Good Afternoon!' 이라 인사하는 1학년 보는 재미, 또 조금 컸다고 가슴에 근육이 나오는(?) 사춘기 이야기에 괴성을 지르는 2학년 보는 재미, 최고 학년이라고 어쭙잡은 무게를 잡는 3학년 보는 재미로 그 부끄러운 선생님 자격을 잊으면서 산다.

실력이 없는 나에 대한 핑계겠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어찌하면 교만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그것은 내가 가진 재주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가르치기에는 내가 인생을 다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다. 단지 아이들과 함께 웃고 놀고 재미있게 사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을.....

선경 컴퓨터 타운

고객이익보장 大세일 컴퓨터, CD, 프로그램

이 병 균(프란치스코)

평화주공1단지 입구

☎231-2237~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국비생 모집·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841-2496, 855-8653

기아 자동차

새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역(요셉)

☎(0652)87-6301~6

호출기 015-685-0312

온천 수림 식물원

관엽, 분재, 동·서양란, 초화

송 종 택(빅 톨)

이 희 순(아가페)

안덕원 우아파울스 옆

☎241-6685, 245-0087

011-659-7995

교구소식

❖ 사제연수(사제 전체모임)

· 때 : 5월21일~23일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교구장 성령강림 대축일 미사

· 때 : 5월26일(일) 오전10시30분
· 장소 : 중앙 성당

❖ 교리교사의 날 행사

· 때 : 5월24일(금) 오전9시30분
· 장소 : 윤호관

❖ 상설고백 쉽니다

· 때 : 5월21일~23일
(사제연수 관계로)

❖ 천호피정 안내

· 때 : 6월1일~2일
· 주제 : 하나님의 길, 인간의 길
· 강사 : 조철현 신부
· 문의 : 73-6600

❖ 새신자 피정

· 때 : 5월25일~26일 오후4시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지도 : 김동준 신부
· 참가비 : 1인당 20,000원
· 신청 : (0653)861-9210
(선착순80명)

❖ 언론인회, 방송인회, 문우회,

사진가회 합동피정
· 때 : 5월25일~26일 오후5시30분
·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혼인강좌

· 때 : 5월26일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 회비 : 1인당 15,000원

❖ 제9회 전주교구 M.E 대회

· 때 : 6월6일(목) 오전9시30분
· 장소 : 군산대학교 실내체육관
· 주제 : 온 가족 하나되어
· 참석대상 : M.E가족 모두
(선택가족 포함)

❖ 사제 어머니회

· 때 : 5월20일(월) 오후2시
· 장소 : 전동 성당 충연관

❖ 사회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때 : 5월20일(월) 오전10시30분
·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 축! 영명

· 23일(성 디디에) 지정환 신부님

❖ 성신강림 성서 피정

· 때 : 5월20일~21일 오전10시
· 장소 : 전동 성당
· 주제 : 창세기 전체
· 강사 : 강 요한 신부
(부산교구 성령지도신부)
· 회비 : 10,000원

■ 권해드립니다 ■

· 신세대 부모여, 확신을 가져라
문용린 지음 / 3,000원
바로로팔

「나는 어떤 부모인가」에 이어 나온 문용린 교수의 두번째 자녀교육 안내서, 신세대 부모로서 익혀야 할 사회 현실 감각과 현명한 교육관을 제시한다.

· 가정을 위한 기도

카세트 2,500원 / 바로로팔
가정에 대한 참된 가치와 고귀함을 묵상하게 해주는 이 카세트는 가족이 기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사회홍보 사도직을 위하여 바치는 기도

주여, 당신은 당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들이 땅에 보내시어 인간의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으로 세우셨나이다.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레코드, CD, PC와 같은 사회홍보 수단이 언제나 당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소서. 교회가 대중매체의 사도직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소를 일으켜 주시고, 선량한 모든 사람이 기도와 활동과 회사로 공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아멘.

- 성바로로팔 수도회 기도서 중에서 -

순창성당 영농조합

〈품목〉 · MSG 무침가 순창 성가정 김치 · 무농약 순창성당 고추장, 100% 재래식 우리콩 된장, 간장
· 장수 한우, 돼지고기, 계화미, 현미, 잡곡 · 주문처 : 전주 동산매장 ☎ 212-7442, 전동매장 ☎ 83-6136, 익산 ☎ 0653)52-5300, 군산 ☎ 0654)452-4939

전원미용실

신부회장 전문
투수퍼머, 커트

고 정 순(에스텔)

☎ 83-0753

우성 자동차 매매상사

중고자동차-팔고, 사고 등록대행

송 주 원(노렌조)
송 성 의(요 왕)

☎ 253-5330

012-671-0999 송주원

012-681-3531 송성의

전북 원예사

농약·씨앗·비료·비니루
각종 농자재 도·소매
<신자분 특별우대>
박 태 수(벨라도)
박 동 왕(요 한)
모래내 시내버스 정류소 앞
☎ 72-7522, 251-7522

경일주택건설

건축토목, 샌드위치판넬, 조립식건축
철구조물공사 전문
김 해 선(레미지오)
안골사거리 LG서비스센터 앞
☎ 245-1611~2
호출기 012-681-0055

노 송 분 재

소나무, 집목나무, 난풍나무

송 군 자(오티리아)

소양초등학교 뒤

☎ 244-7045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 부 실 82-9661 주임신부 범 영 배
F A X 82-9664 수 너 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1. 자모회 임원 개편: 회장-문선자(안젤라), 부회장-이선화(벨라리아), 총부-서정희(유리안나), 서기-유수현(라헬), 회계-김진남(테레사) * 수고하시겠습니다.
 2. 첫 영성체 교리반 모집: 대상-국민학교 3학년~6학년, 신청-사부실
 3. 사제 연수회: 21일(화)~23일(목), 천호 피정의 집 21일, 22일-말씀의 전례, 23일-저녁미사 * 많은 기도바람
 4. 성모의 밤: 23일, 저녁미사 후
 5. 복사단 소풍: 24일 광주 해밀리랜드, 9시출발
 6. 교리교사의 날: 24일, 전 9시 30분, 윤호관 * 교리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7. 울뜨레아 행사: 24일, 해성교 강당, 9시30분 출발
 8. 유아세례: 25일 후 3시, 사부실에 신청바람
 9. 감사헌금: 중노6반 송막시바-100만원, 감사합니다.
 - 10.모임: ①자비의 모후Cu.-오늘 공식미사 후 ②제대회-22일 전 10시30분 ③천사의 모후Cu., 성우회-26일 공식미사 후
 - 11.금주 전례: 해설-최광식, 독서-①이봉기 ②문선자 신자들의 기도-김종호 부부, 봉헌-이영관 부부
 - 12.차주 전례: 해설-박운순, 독서-전자석 부부 신자들의 기도-송석창 부부, 봉헌-윤석연 부부
 - 13.청소: 금주-중노 9,10반, 차주-중노 11, 기린봉 1반
- 지난주 봉헌금: 1,033,490원 □ 교무금: 1,104,500원
□ 2차헌금: 355,850원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 부 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 너 원 84-2276 사목회장 민 범 부

1. 교리교사의 날: 24일(금) 전 9시 30분, 윤호관
2. 교구장 사목방문: 28일(화) 후 2시 * 사목회 임원님들은 많은 참석바람
3. 성모의 밤: 31일(금) 후 8시
4. 신부님 연수: 21일(화)~23일(목), 천호 피정의 집 * 21일(화)~23일(목)-미사 없음
5. 수녀님 연피정: 20일(월)~24일(금) * 신부님과 수녀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6. 차주 모임: 반장회-26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7. 청소 안내: ①금주-상아담Pr. ②차주-평화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1,006,000원 □ 교무금: 559,000원

*** 복 자** 주임신부 86-3453 사 부 실 86-3455 주임신부 정 승 현
수 너 원 86-3454 사목회장 박 상 기

1. 주의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오늘 초남리 성지, 성당에서 9시 반에 출발
2. 사제 연수: 21~23일, 천호 피정의 집
3. 예비신자 인도 기간: 25일~6월 2일 * 한 가정에 예비신자 한 분씩 주님께 인도합니다.
4. 교리교사의 날 행사: 24일(금) 윤호관
5. 남전주지구 중고 백일장 및 소풍: 26일, 체련공원
6. 유아 세례: 25일(토) 후 7시
7. 금주 모임: 팍스카회-공식미사 후
8. 주간 모임: ①울뜨레아-21일(화) 저녁미사 후 ②M.E모임-24일(화) 후 7시30분 ③빈첸시오회-25일(토) 전 10시
9. 호도관광 친조금 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황길평, 신일균-각 20만원, 신형-10만원, 거구장, 이상인, 강영진-각 5만원, 요셉회, 작은모임-각 3만원, 유두석-2만원
- 10.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지혜용 부부, 봉헌-조백환 가족
- 11.차주 전례: 해설-황만금, 독서-안철조 부부, 봉헌-강주호 가족

□ 주일 헌금: 673,100원 □ 교무금: 1,156,50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 부 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섭
F A X 85-6652 수 너 원 85-6653 사목회장 강 덕 용

- ◎ 5월은 성모성월: 성모님의 믿음과 기쁨, 사랑을 본받읍시다.
1. 금주 모임: ①새영세자모임-공식미사 후 ②푸르실료 울뜨레아-25일(토) 8시, 성당
 2. 차주 모임: ①자모회, 성모회-다음주일 ②성마리아Co.-26일(일) 후 2시, 진동성당
 3. 성가대 산행: 21일(화) 7시, 지리산 영신봉(1651m) 철쭉제
 4. 안나회 성지순례: 27일(월) 7시, 경기도 화성군 남양성지
 5. 다음주일: 교부님 납부주일
 6. 성모의 밤 행사: 31일(금) 후 8시 꽃과 초 봉헌,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7. 첫영성체 교리: 6월 7일까지, 후 4시(화, 수, 목, 금)
 8. 다음 주일분당발전을 위한 2차헌금
 9. 축! 촌인: 오늘 12시 30분 신랑-김홍효(요한), 신부-최선희(소피아)
 - 10.성당 청소: 금주-모든 성인의 모후Pr. 차주-성실하신 동정녀Pr.
 - 11.금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최경림 ②최정에 봉헌-김완식 가정
 - 12.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남현준 ②오민숙 봉헌-최영순, 서정희 자매

□ 지난주 봉헌금: 339,650원 □ 교무금: 234,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 부 실 84-3222 주임신부 김 봉 회
보좌신부 82-7245 수 너 원 82-9234 보좌신부 송 영 진
F A X 82-6232 유 치 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 ◎ 주의 승천 대축일
1. 금주 모임: ①용머리 성당을 위한 2차헌금 ②바녀의 성모 푸리아-후 2시 ③청년회-후 8시
 2. 주간 모임: ①성화회-20일 후 7시 ②성모회-21일 전 11시 ③베엠타회-22일 전 11시
 3. 사제 연수: 21~23일 많은 기도바랍니다. 사제 연수 관계로 21일 저녁미사, 22일 새벽 저녁미사, 23일 새벽미사는 말씀의 전례로 대신합니다.
 4. 성신 강림 성서 대피정: 20일(월)~21일(화) 전 9시~후 5시, 분당, 대상-일반교우, 감사-강요한 신부님(부산 교구 성령 왜신 지도신부), 회비-일반원, 지참금-신·구약 합본성서, 가톨릭 성가집, 복음 성가집, 필기도구
 5. 액정 비전 상영: "엑스터스", 22일(수), 24일(금) 전 11~11시 30분, 충열관, 대상-전신자(예비신자 포함)
 6. 성모의 밤 행사: 25일(토) 후 8시
 7. 성 모자상, 베엠타상 건립: 김상규(요셉), 정정자(마리아) 부부 봉헌(이천오백만원)-감사합니다.
 8. 시순절 동안 정성껏 기르신 돼지저금통: 사부실에 제출바람
 9. 사진 찍으신 분은 사부실에서 찾아 가십시오.
 - 10.차주 모임: ①성 마리아 꼬미씨유-후 2시 ②차량 축복식-공식미사 후 ③교무금 납부주일
- 지난주 봉헌금: 2,050,110원 □ 교무금: 2,013,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 너 원 232-5004 주임신부 이 상 섭
F A X 232-5003 사 부 실 232-5005 사목회장 강 상 근

- ◎ 경축! 주의 승천 대축일: 오늘 10시 30분, 야외미사 및 행사
1. 사제연수: 21일~23일, 천호 피정의 집 * 신부님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남전주지구 초등부 사생대회 참가: ①글짓기부문 대상-김보람(6학년) ②그림부문 은상-윤보라(유치부), 동상-박계현(4학년)
 3. 교구 울뜨레아: 24일 전 10시30분-후 4시, 해성 중·고 강당
 4. 성모의 밤: 28일 저녁미사 후
 5. 청년회: 오늘 저녁미사 후
 6. 주간 모임: 형제기도회-①8구역 7반 21일 ②8구역 8-9반 23일
 7. 차주 모임: ①성소후원회, 한빛회, 노영희, 임마누엘, 몽승회-공식미사 후
 8. L.M회합 안내: 24일(금) 교구 울뜨레아 관계로 해당팀은 미리 회합바람
 9. 전신자 썩 캐는 날: 21일 전 9시 30분 성당 출발 * 차량방사에 적극 협조바람
 - 10.전신자 썩개떡 만드는 날: 23일 전 9시
 - 11.재활용품 수집: 신문지만 가져와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1,519,760원 □ 교무금: 2,255,000원